CONTENTS

04 대청호와 만난 사람들 - 88
김태원 대청호 수난구조대 대표

11 실개천과 금강 - 11

17 대청호해설사의 오백리길 이야기 - 20

23 정책&이슈 환경부 기후대응댐 관련

28 교육 및 홍보 사업소개

32 네트워크 사업보고

37 대청호뉴스&뉴스

40 대청이가 알려주는 '대청호가족' 소식

42 대청호와 함께하는 단체들

대청호 소식 vol.145

발행일 2024. 10. 10.
발행인 오용준
발행처 (사)대청호보전운동본부
편집인 이용욱
사무처 김재곤, 이용욱
대청호유역하천센터 김재곤
주 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미호동 632-11

전 화 (042)930-7340~1
전 송 (042)930-7342
홈페이지 www.daecheong.or.kr
편집·인쇄 하늘북
대전광역시 동구 태전로50
(042)628-2038

표지이야기 : 대청호보전운동본부 가을호 소식지가 나왔습니다. 선선한 가을바람이 부는 계절에 인사드립니다. 하늘이 높고 맑아지는 이때, 여러분의 마음도 가을처럼 깊어지길 바랍니다. 결실의 계절이 주는 풍성함과 함께,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물 속에서 생명을 구하고, 물 밖에서 자연을 돌보다

김태원 대청호 수난구조대 대표

글_**이용욱** 대청호보전운동본부 팀장

대청호와 만난 사람들은 다양한 지역과 분야, 단체에서 대청호 보전을 위해 활동하시거나 소중한 힘을 보태고 계신 분을 소개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대청호 수난구조대의 김태원 대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환경 문제와 그 해결 방안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김 대장은 환오랜 세월 대청호와 함께하며, 환경 보호와 인명 구조라는 두 가지 중요한 사명을 이끌고 있다. 이번 인터뷰에서 김 대장은 대청호와 맺어온 인연, 그리고 그곳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진솔하게 들려주었다.

지난 8월경 대청호 수난구조대 사무실에서 김태원 대장과 함께 많은 대화를 나누며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대청호와의 첫 인연과 환경 변화

김 대장과의 인터뷰를 시작하며 지금의 대청호와 예전 어렸을때의 기억속의 대청호는 어떻냐는 물음에 김 대장은 아련한 옛 추억을 떠올리며 말해주었다.

"저는 옥천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옥천 군서면에서 고등학교까지 나오고, 이후 잠시 대전에 머물다 다시 옥천으로 돌아온 지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어릴 적부터 대청호는 제 삶의 배경이었죠. 그때는 대청호가 그냥 자연의 일부로만 느껴졌어요. 아이 때는 그저 놀고, 물가에서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던 곳이었죠. 세월이 지나면서 환경이 많이 변했어요. 어린 시절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지만, 지금 와서 보면 그때와 지금의 환경은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특히 대청호 주변은 오염이 심해졌죠. 이런 변화를 보며, 우리가 자연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 대장은 그의 어린 시절은 대청호와 함께 흘러갔다고 말해주며 시간이 지나면서 대청호는 단순한

자연의 일부가 아니라, 보호해야 할 소중한 자원이란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하며 그의 말에서 자연에 대한 애정과, 이를 지키기 위한 책임감이 느껴졌다. 대청호가 단순한 기억의 배경을 넘어서 그가 지켜야 할 목표가 되었다고 말해주었다.

대청호 수난구조대의 설립과 임무

"대청호 수난구조대가 설립된 이유에는 사람들이 수상레저 인구가 증가하면서 그만큼 대청호에서의 사고가 늘어나게 되면서, 사람들이 신고를 하지만 아쉽게도 이곳에 필요한 건 빠른 대응력인데 소방서가 멀리 있어서 긴급한 상황에서는 구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그리고 대청호는 수심이 깊고 일반 사람이 함부로 누군가를 구조하고 하기 힘든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망자가 생기기도 하고 나중에는 누군가가 실종이 되었지만 한참 뒤에나 찾을 수 있는 일이 생기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누군가가 현장에서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라고요. 그래서 2020년에 수난구조대를 설립하게 됐죠. 해병대 출신들과 함께 의기투합해서 만들었어요. 이제는 대청호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저희가 제일 먼저 나서서 구조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와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죠."

그의 설명에서 대청호 수난구조대가 대청호 지역의 안전을 지키는 중심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수난구조대는 단순한 인명 구조에만 그치지 않는다.

"사고가 없을 때는 대청호의 환경 정화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대청호 수중에는 침수된 배나 산업 폐기물이 많이 쌓여 있어요. 특히 유리섬유로 된 FRP 배들은 폐기 비용이 비싸다 보니 그냥 물에 침수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는 그런 배를 인양해서 수질 오염을 막는 작업도 하고 있어요."

김 대장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수난구조대의 활동은 환경 보호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단순히 사고 구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청호를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병행되고 있다.

위험을 무릅쓰고 생명을 구하다

"대청호에서 구조 활동을 하다 보면 정말 위험한 순간들이 많습니다. 대청호는 수심이 깊고, 물속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5미터만 들어가도 완전히 깜깜합니다.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손으로 더듬어가며 수색을 해야 하죠."

김 대장은 대청호에서의 구조 작업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설명하며, 실제로 죽을 고비를 넘긴 경험을 털어놓았다.

"한 번은 수중에서 돌아가신 분을 찾다가 정말 죽을 뻔한 적이 있어요. 그 순간 제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더군요. 이게 끝이구나 싶었죠. 그때가 가장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저희는 계속해서 구조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보람 있는 순간은 돌아가신 분을 가족에게 돌려드리는 순간이에요. 가족들이 오열하는 모습을 보면 저희도 함께 눈물이 나죠. 그러한 가족분들의 모습을 보며 아픈 마음을 달래준다는 그럼 심정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이 일을 왜 하는지 다시 한 번 느끼게 됩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이 생명을 구하는 일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요."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구조 활동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생명을 구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과 책임감이 그를 이끌고 있다.

그리고 당부의 한 마디를 남겼다.

"대청호에서 수상 레저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사고도 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수상레저 인구가 급증하죠.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사람들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명조

끼 하나만 입었더라면 살 수 있었던 사고가 정말 많습니다. 구명조끼를 입으면 사고가 나도 90%는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가볍게 생각하고 입지 않죠. 저는 그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수상 레저를 즐기기 전에 안전이 우선이라는 걸 꼭 명심해야 해요."

그는 안전 의식을 높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했다. 구명조끼 착용은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대청호 쓰레기 문제 그리고 지역 사회와의 협력

"대청호는 장마가 지나가면 상류에서 떠내려오는 쓰레기로 가득 찹니다. 저희 수난구조대는 그런 쓰레기를 수거하는 것도 중요한 임무 중 하나예요. 철선 같은 장비를 이용해 쓰레기를 모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에서 나오는 농약병이나 폐비닐들이 문제예요. 주민들이 밭에서 사용하고 방치해 둔 것들이 장마철에 떠내려와 대청호로 유입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약병 수거함 설치 같은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청호는 단순한 관광지나 물놀이 장소가 아닙니다. 이곳은 수많은 생물이 살아가는 중요한 생태계에요. 그런데 이런 오염이 계속되면 결국 대청호의 생태계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수질이 악화되면 대청호의 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도 건강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저희 수난구조대도 매년 환경 정화 작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희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대청호의 환경을 지키려면, 우리 수난구조대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 행정기관, 그리고 관련 단체들이 모두 함께 나서야 합니다. 특히 농촌 지역에서 나오는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려면, 농약병 수거함을 설치하는 등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주민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 더 많이 알고, 함께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해요. 그래야 대청호를 깨끗하고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수난구조대의 미래와 목표

"앞으로도 저희 대청호 수난구조대는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계속해서 대청호를 지키고, 인명 구조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수난 구조라는 게 언제든지 갑자기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사고가 나면 저희가 제일 먼저 출동해서 사람을 구해야 하니까, 평소에도 꾸준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새로운 장비도 도입하고, 대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과 훈련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대청호는 사고가 잦은 곳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환경 보호가 절실히 필요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명 구조뿐만 아니라, 대청호의 환경을 지키는 일도 앞으로 계속 강화해 나가려고 합니다. 대청호의 쓰레기 문제는 해마다 반복되는 큰 과제예요. 장마철이 지나면 대청호에 엄청난 양의 쓰레기가 떠내려오고, 저희 구조대는 그걸 수거하는 일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체계적으로 수거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고, 장비도 더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특히 환경 보호 활동에 대해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희 수난구조대가 하는 일이 단순히 사고 구조에만 그치지 않고, 대청호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지역 주민들과도 더 긴밀히 협력해서, 대청호 주변의 환경을 지속적으로 정화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환경 정화 활동이 단순히 한두 번의 봉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대청호가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입니다."

"또한, 저희 구조대가 하는 활동이 지역 사회에서도 더 인정받고, 더 많은 지원을 받았으면 합니다. 지금도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함께해주신다면 저희 활동의 폭이 훨씬 넓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대청호는 혼자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함께 협력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수난구조대도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대청호를 지키는 활동의 중요성을 알리고, 그들과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대청호를 더 안전하게, 더 깨끗하게 만들어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고 싶습니다. 저희 대원들 모두가 같은 마음이에요. 저희는 단순히 구조 활동만 하는 게 아니라, 대청호를 보호하고자 하는 사명감으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청호에서 더 많은 생명을 구하고, 대청호의 환경을 더 깨끗하게 만드는 데 앞장설 겁니다. 저희 대청호 수난구조대의 미래는 이 대청호와 함께합니다."

그는 대청호가 미래 세대에도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으로 남기 위해, 대청호를 둘러싼 모든 이들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대청호를 위한 그의 열정은 여전히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구봉천, 갑천 그리고 금강

글_**문광연** 개구리 도롱뇽 그리고 뱀 일기 저자

구봉천 상류입니다

구봉산에서 발원한 구봉천은 서대전IC를 휘돌아 갑니다. 대전남부순환고속도로 아래를 통과하여 계백로와 용소교를 지나, 도안동에서 갑천과 만나 금강으로 흘러갑니다. 계백로를 가운데 두고 물길은 복계천이 됩니다. 도안동쪽에서 다시 물길이 나옵니다.

복계천이 끝나는 지점입니다

징금다리 위 정수구역입니다

징금다리 아래 여울입니다

상류에서 내려온 모래입니다

용소수변공원 유수지입니다

유난히도 더웠던 8월 말, 구봉천 탐사를 갔습니다. 상류 쪽은 수량도 적지만, 큰 오염원이 없어서 깨끗합니다. 상류의 물가에는 미나리, 고마리, 갈대들이 많아서 정화 시켜 주어 깨끗함을 유지합니다. 관저동 쪽에서 복계된 하천은 빛을 보지 못하고, 신선한 공기도 공급받지 못하여 오염되기 쉽습니다. 마치 옛날 서울의 청계천이라고 할까요. 계백로를 통과한 물길은 도안동 쪽에서 햇빛을 봅니다. 이곳으로 나오는 물은 악취가 납니다.

조금 내려가니 물이 좀 깨끗해졌습니다. 징금다리가 나옵니다. 징금다리 주변에는 검은물잠자리들이 많이 와서 놀고 있습니다. 멀리서 쇠백로가 놀러 왔습니다. 옆을 보니 항상 혼자 다니고 있는 왜가리가 보입니다. 왜가리와 쇠백로들은 목이 길고 S자로 굽어 있으며 부리가 길어 사냥을 잘합니다. 이들의 주 먹이원은 물속에 놀고 있는 물고기입니다. 물속을 보니 온갖 이름 모를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있습니다. 물이 깨끗하니 물고기가 있고, 물고기가 있으니 상위 포식자인 쇠백로와 왜가리가 오는 것이겠지요.

징금다리를 중심으로 위와 아래의 물길은 다릅니다. 위쪽은 징금다리가 보가 되어 물이 고여있습니다. 물이 고여있는 곳을 좋아하는 물고기들이 많습니다. 대표종으로 붕어가 있겠지요. 이런 물 고인 곳은 개구리나 도롱뇽, 잠자리들의 산란장이 되기도 합니다. 흐르는 물보다 고여있는 곳이 알의 발생과 유생들에게 좋은 환경이지요.

징금다리 아래쪽에는 돌과 자갈이 많고, 물살이

갑천과 만나는 합류점입니다

도안억새숲 입니다

빠릅니다. 이런 곳을 여울이라고 하지요. 여울은 물의 흐름이 빠르고 돌과 자갈에 부딪치면서 포말을 만들기도 합니다. 포말에 의해 신선한 산소가 물에 녹아들게 만들지요. 이런 곳을 좋아하는 물고기도 있으며 저서무척추동물들도 많습니다.

조금 더 내려가니 다리 밑에 모래가 많이 쌓여있습니다. 모래는 상류에서 하류로 내려가지요. 그러니 상류보다 하류가 많지요. 모래가 많이 쌓여 하천의 가운데에 계속 쌓이면 섬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하중도이지요. 하천의 하중도는 주로 모래성분이 많고, 초본류가 자라면서 모래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곳을 지나는 물은 더욱 깨끗해 지지요. 마치 정수기의 필터와 같은 역할을 하니깐요. 실개천에서 자갈, 모래, 흙, 돌들은 자연의 필터이지요.

갑천습지 입니다

갑천국가습지보호구역 입니다

이런 필터에 오염물질이 쌓이면 정수작용이 못 일어나겠지요.

용소교를 지나고 있는데 풀 속에서 풀벌레 소리가 들립니다. 가을이 가까워졌나 봅니다. 멀리 하늘을 보니 파란 하늘에 흰 구름이 한 폭의 수채화 같습니다. 참새 때가 하늘로 날아갑니다. 잠자리들은 파란 하늘에 비행기처럼 잘도 날아 오릅니다. 용소교를 지나서 아래로 내려오니 넓은 공원이 보입니다. 용소수변공원입니다. 공원 옆에는 유수지가 있습니다. 버드나무, 수크렁, 강아지풀이 넘실거립니다.

2024년 7월, 대전에 큰비가 내렸습니다. 큰비가 오면 하천의 물이 이곳으로 들어와 가득 채우고 천천히 빠져나갑니다. 유수지는 큰비가 왔을 때 물을 일시적으로 모아두었다가 천천히 빼면서 하천의

금강으로 가는 갑천입니다

수량을 조절하여 홍수를 방지하는 시설이지요. 큰 비가 오지 않을 때는 물웅덩이나 배수로에 물이 고입니다. 때마침 이곳 주변에 살고 있는 큰산개구리, 참개구리, 청개구리, 맹꽁이들이 때로 몰려 와서 울고, 알을 낳는 장소로 안성맞춤입니다.

큰산개구리는 2월에, 참개구리 청개구리는 5월에, 맹꽁이는 6, 7월에 찾아오지요. 줄장지뱀 등 파충류도 많습니다. 마치 이곳은 양서류와 파충류의 자연 관찰장 같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알을 낳을 때는 물이 있어 좋은데, 올챙이가 되고 조금 지나면 물이 빠져 말라 버립니다. 그러니 올챙이들이 모두 죽습니다. 이곳에 올챙이들이 아성체가 되어 자연으로 잘 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물이 고이게 물웅덩이와 하수도를 조금 개선하여 홍수도 막고, 양서파충류가 노니는 훌륭한 자연공원이 되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내려가니 '갑천국가습지보호구역'이 나왔습니다. 이곳은 습지가 많고 버드나무, 달뿌리풀, 갈대, 억새, 고라니 등 많은 동·식물이 살아가는 대전의 허파입니다. 갑천 상류에서 내려온 많은 물이 이곳을 지나면서 다시 정수되지요. 습지는 너무도 소중한 우리의 보물입니다. 다행히 국가 습지로 지정되어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습지를 통과한 물은 신이 나서 금강을 향해 갑니다. 금강은 흘러 흘러 서해로 가지요.

구봉천, 갑천, 금강은 우리의 혈관입니다.

대청호 녹조 이대로 괜찮은걸까?

글_**여규용** 6기 대청호해설사

올 여름은 유난히 더웠다. 한창 더울 때는 35~36도를 오르내리기도 했는데 너무 더워서 어찌할 줄 몰랐던 올 여름이다. 그런 여름이 가고 조금씩 시원한 바람이 불어 주니 참 고마운데 그 사이 무더웠던 여름날의 힘들었던 기억은 눈녹듯 사라지고 없다. 사람은 기억의 동물인데 어쩜 그렇게 쉽게 잊어 버리는건지 모르겠다. 거기에 동화되는 나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무더웠던 어느날 대청호 변을 돌아보았다. 더운날의 대청호가 궁금했던 거다. 그렇게 대청호에 나가 보길 여러번이었는데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이곳이 이제 유원지가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들곤 했었다. 물론 시민들이 휴식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는거 안다. 그러나 그러는 과정속에 이곳이 우리들 먹는 물그릇이라는 것을 함께 알리고 관심을 가지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이 드는 것은 대청호에 관심이 많은 사

석호리 쓰레기 수거장 주변 호수

람이면 드는 생각일 것이다.

무더웠던 여름 어느날 몹시도 비가 내리고 비 피해 소식으로 어수선 했던 날 가득했던 대청호 만수위를 생각하며 차를 달려 나가 보았던 기억이 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가벼운 마음이었고 기분 전환하는 마음으로 나갔던 터라 마음은 평안했었다. 자주 가는 옥천쪽 석호리부터 찾았다. 차를 몰아 청풍정 쪽으로 갔었는데 차창 밖을 보니 대청호는 가득한 흙탕물에 눅눅한 습기 머금은 바람이 장마철임을 대변하듯 호수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청풍정에 다다르니 차 오른 물로 인하여 칭풍정은 지붕만 보이고 호숫가 아름다웠던 풍경은 물속으로 사라지고 없었다. 뒷길로 돌아 마을 쪽으로 들어가다가 산능선길에 차를 세우고 내려다보니 호수 위에는 각종 쓰레기들이 가득하게 떠다니고 있었다. 청풍정은 물속으로 사라지고 쓰레기들은 호수를 가득 채운 모습은 내가 대청호를 찾은 이래 처음 보는 모습이었고 그 모습에 그동안 좋은 이미지로만 기억되어 있던 생각들이 많이 흔들리게 되었다. 우리가 먹는 물 이라고 열심히 이야기하며 다녔고 또 그것에는 변함이 없는데 왜 마음은 이리도 착잡한 것인지 모르겠다.

우리는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것이 참 많다. 어떤 일에 대해서는 매일 목소리를 높이면서 아우성을 치는데 어떤 일에 대해서는 남의 일 인양 무관심으로 모른척 하는 일들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그런 것이 익숙해져 있다. 해마다 호수로 떠내려오는 쓰레기들로 호수는 몸살을 앓고 있고 그것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과 막대한 예산을 들이면서도 정작 예방하고져 하는 것에는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인간은 이기적인 동물이다. 자기 일에 조금이라도 손해가 미치는 듯하면 절대 묵과하지 않으며 손해를 볼 수 없다는 생각으로 다른 사람들이야 피해를 보든 말든 자기만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인간이다. 호수 주변에는 여기저기 작은 경작지들이 눈에 뜨인다. 빈터에 사람들이 농작물을 심는 것인데 이런 곳을 홍수터라고 한다. 여기에는 절대로 농작물을 재배하는 행위를 해서는 않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런 터를 다듬어 농작물을 심고 가꾼다. 이런 행위들이 호수를 병들게 한다는 것은 말을 하지 않아도 다들 알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농작물을 키우지 않아도 살아가는 데에는 문제가 없는 사람들임에도 그렇게 욕심을 부리는 것은 어떤 연유인지 모르겠다. 그런 인간의 습성을 이해하기 힘들다는 생각이 들곤 한다. 하지 말라는 일에는 더 열심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이 궁금해진다.

내가 학교에 물 환경 교육을 다니면서 누누이 강조하고 이야기했던 일이 오염원 줄이기였었다. 올해는 교육 기회가 많이 줄어들어서 우리 주변의 환경에 대하여 이야기 할 기회가 많지 않아서 아쉽지만 그때 이야기했던 것들 중에 비점오염이라는 것을 많이 이야기했던 기억이 이번 장마 때 대청호를

석호리 쓰레기 수거현장 모습

석호리 쓰레기 수거 모습

추소리 쓰레기 수거장 근처 호수

추소리 쓰레기 수거장 모습

돌아보면서 드는 생각이었다. 우리가 환경오염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살고 있지만 정작 자기 행위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생각한다. 홍수터에 농사 짓는 사람들과 상류 지역의 마을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환경에 대한 생각이 대대적으로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다면 이런 일은 해마다 반복될 것이다. 농작물을 키우기 위하여 주는 비료들과 병충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치는 각종 농약들과 농작물 밭에 설치하거나 쌓아놓은 농자재들이 중요한 비점 오염원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다.

요즘 내가 문득 문득 드는 생각이 있다. 어느 정치인이 이야기했었느데 “사람이 먼저다” 하는 말을 무수히 하면서 선거에 사람을 이용했던 적이 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을 “사람이 문제다” 라고 바꾸고 싶다. 모든 사회문제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사람들로 인해서 벌어지고 만들어지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사회문제도 자기들 이익에만 몰두하면서 그것이 국민을 위한다고 목소리 높이는 것도 사람이었고 이렇게 환경 문제도 말로는 하면 않된다고 하면서 실제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또 오염시키는 일을 앞장서서 하는 것도 모두 사람들이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 스스로 변화를 하려고 해야 한다. 내가 먼저 변화하지 않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어불성설 인것이다.

이렇게 대청호에 몰려드는 각종 쓰레기들이 물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몰려든 영양분들이 많은 대청호 물은 뜨거워진 날씨에 녹조가 가득해졌고 장마철이면 항상 벌어지는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는지 궁금하다. 그냥 무심하게 당연히 그러려니 하면서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심각하게 이런 문제를 생각해야 한다. 내가 걱정하는 것은 그러려니 하면서 타성에 젖어 있었다면 이번 기회를 이용하여 다시금 마음을 다잡아 보는 시간으로 만들어 봤으면 하는 거다. 장마가 끝나갈 무렵 이번에는 석호리 부유 쓰레기 처리장을 찾았다. 그곳을 둘러보고 이어서 추소리로 넘어 갔었는데. 생각 했던 대로 석호리에는 어마어마한 쓰레기 산이 만들어져 있었다. 그곳에는 떠다니는 쓰레기들을 건져 올리는 인부들 몇 분만 뜨거운 날씨에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잠시 석호리 주변을 걸었는데 몰려드는 모기들은 왜그리 많은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쌓여 있는 쓰레기들로 인하여 모기들도 그렇게 많이 살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물빛은 완전히 썩어 있는 것처럼 보였다. 실망스런 마음을 누르고 차를 돌려 추소리로 향했다.

심각해진 대청호 녹조를 걱정하며 찾아간 추소리 역시 밀려든 쓰레기들로 분주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상류쪽 석호리에서 1차로 걸러냈지만 그래도 하류쪽으로 빠져나온 부유 쓰레기들을 2차로 걸러내는 곳이 추소리 펜스 지역이다. 추소리는 아름다운 경관이 유명한 부소담악이 존재하는 곳인데 그 부소담악으로 가는 길목에 부유쓰레기 처리장이 존재하기에 막상 그곳을 찾은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에 충분하다. 그것을 뒤로하고 걸어 들어간 부소담악 추소정 아래에는 심각해진 녹조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대의 폭기조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과연 그것으로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 의문이 들었지만 그렇게라도 하려고 하는 것을 보며 그나마 무관심하지 않음에 고마운 마음이 들기도 했다.

대청호는 참 아름다운 호수이고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곳이다. 그렇기에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한 것이고 그 관심이 우리가 먹는 물그릇을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는 지름길이기에 이렇게 돌아보고 글로서 호소하는 것이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생각은 많을 것이다. 공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대청호 물을 깨끗하게 하고 잘 관리하자는 것은 다 같은 마음일것이라 생각한다. 장마철이면 밀려드는 쓰레기들과 그래서 발생하는 녹조현상은 당연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예방하고 노력한다면 어느 정도 줄일 수 있거나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이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소중한지는 말하지 않아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그런 물이 무관심 속에서 푸대접을 받는 것을 보면 안타깝고 슬픈 생각

추소리녹조방지 폭기조 모습

마져 들곤 한다.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비로소 부랴부랴 무언가 하는 척을 한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사람이 문제다" 하는 것이다.

밀려드는 쓰레기들로 만들어진 쓰레기 산을 보며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그것도 하나의 관광상품 대하듯 그렇게 바라볼까 아니면 진짜 문제의식을 가지고 바라보고 마음속으로 반성을 할까? 누구나 다 이유가 있을 것이고 생각이 다름을 이야기할 것이다. 그러나 환경을 지키는 일에는 한마음이면 좋겠다. 그곳에서 일자리를 얻어 일을 하든 봉사활동으로 지킴이 활동을 하든 대청호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들이 하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어떤 사람은 그런 활동을 하면서 이래저래 편을 가르고 이합집산을 하기도 하고 자기 이익에 따라 생각을 달리하면서 정작 대청호를 돌보는 일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있다. 가끔은 진심으로 대청호를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을 폄훼하고 멀리하려는 것을 느끼고 그런 모습을 볼 때는 슬픈 자괴감 마져 들곤 한다. 이 역시 "사람이 문제다" 라는 생각을 앞서게 한다. 가을이 깊어 간다.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다. 나이를 먹을수록 성숙해지는 생각으로 알뜰한 알맹이 가득한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다. 다음에는 대청호에 녹조가 많이 없어지는 모습을 보았으면 좋겠다. 우리들 마음에도 그런 녹조가 없는 맑은 마음이기를 소망해 본다.

정책&이슈 환경부 기후대응댐 관련

기후위기에 필요한 물관리는 적응과 자연성 회복 확대입니다

글_**유진수** 금강유역환경회의 사무처장

지난 7월 31일 환경부가 전국의 14개 신규 댐 건설 후보지를 발표했다. 댐을 건설하는 가장 큰 이유는 홍수와 가뭄을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이명박정부 시절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홍수와 가뭄을 해소하기 위해서였다. 전국에 16개 보를 세우고 유지관리하는데 22조원을 훌쩍 뛰어넘은 천문학적인 예산이 현재까지도 낭비되고 있다. 결국 4대강 물환경을 파괴한 영향을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기후변화는 전지구적인 사실이다. 기록적인 폭염과 열대야는 9월 백로 절기를 넘어서 6일 앞으로 다가온 추석 대명절을 코앞에 둔 지금껏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 뜨거웠던 열대야를 거쳐온 날들을 증빙이라도 하듯이 9월 전기요금 폭탄 명세서가 속속 배달되고 있다. 금강과 대청호 유역도 예외가 아니다. 최근 들어서 집중강우와 태풍등으로 홍수가 발생하고, 폭염에 이어서 독성 녹조 발생이 주민들의 건강까지도 위협하고 있다. 또한 가뭄은 지역적인 강우 편차와 물수급의 불균형때문인데도, 시대를 거스른 물관리정책으로 더 이상 한계를 넘어서질 못하고 있다.

지난 2022년에도 가뭄이 들어 주민들이 초상집 분위기라고 거짓말로 상시개방한 공주보를 재가동해야한다면서, 그보다 5년전인 2017년 청양지역의 가뭄이 들었던 논에 레미콘으로 물을 대는 사진을 마치 2022년의 가뭄인 양 보도했던 4대강 사업 칭송자들의 정략행위가 기후변화 극복의 발목을 잡고 있다. 지금의 환경부는 4대강 16개 보를 그대로 재가동하는 것도 모자라서 전국에 14개 댐을 건설하려든다니 갈수록 태산이다.

환경부가 신규 댐 건설 발표를 하면서 기후위기 대응댐이라고 포장한걸 보면, 스스로도 댐 건설이 제2의 4대강사업이자 국토환경파괴행위임을 알고 있음은 짐작하고도 남는다. 그만큼 이번 발표는 여러 가지로 근거와 설득력이 전혀 보이질 않는다.

우선, 충남서북부지역을 포함해서 금강유역의 물부족은 거짓이다. 금강유역 물관리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제1기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 임기 종료 직전에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부합성검토를 공식적으로 요청하였던 금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 수립 최종본에 따르면, 금강유역의 1년간 물이용수요는 농업용수 16.5억톤, 생활용수 6억톤, 공업용수 1.3억톤

으로 23.8억톤[1]이었다. 지하수이용량 7억톤을 별도로 추가한다고 가정해도 총 30.8억톤이다. 그런데, 금강유역 물기반시설에서 1년간 용수공급능력을 살펴보면, 저수량은 제쳐두고서라도, 댐과 저수지가 24.4억톤, 금강하구둑과 담수호가 15.6억톤으로 지하수를 빼더라도 총 40억톤[2]으로 산정되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내놓았던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반영한 금강유역물관리유역계획에 명시되었던 수치다. 단순비교로 오히려 약 10억톤의 여유가 있다. 게다가 농업용수 사용량은 매년 줄어드는 것으로 전망치가 나왔다. 금강유역은 금강본류, 금강서해, 삽교천, 만경·동진강유역으로 4개유역으로 나뉜다. 유역마다 강우, 물이용, 산업, 도시규모등이 서로 다름에서 오는 차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물관리기반시설의 연계 운영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다. 또한 홍수 피해 발생 원인으로 홍수터(범람원), 둠벙 등이 하천 및 지하수 개발과 함께 사라지면서 수생태, 가뭄·홍수 대응능력이 악화되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지천기후대응댐후보지(안) 주민설명회 자료

둘째, 국가물관리계획에 위배된 것 뿐만 아니라, 금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에도 위반된다. 불법적인 유역물관리계획 작성에다, 그에 따른 위법 행위를 계속해서 양산할 게 뻔한 행위다. 신규 댐 건설은 가뭄과 홍수등 기후변화 대응에 효과를 거둘 수 없다. 오죽하면 환경부가 2018년에 국가 주도의 댐 건설 중단을 선언했을까. 물관리통합이 되면서, 우리나라 이·치수 정책은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위한 유역 협치 기반, 자연과 인간의 공존이라는 기조 아래 진행되어왔다. 이는 전세계적인 댐 해체 운동이나 정책과도 같은 맥락이다.

2021년 수립된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물재해 안전 체계구축 추진전략'에서 (과거)시설중심, 과거기상여건, 하천등급 위주의 획일적 관리에서 (미래)기후변화에 따른 불확실성 고려, 예상 피해지역,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한 선택과 집중 관리로 안전대응 개념을 전환하였다.

제1기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2022년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있은 전체 민간회의에서 금강유역의 5개 광역시도와 한국수자원공사를 비롯한 물관련기관 주무자들을 불러 모아서 금강유역의 물이용과 가뭄, 홍수 대응방안으로 물관리시설의 연계 운영을 통한 통합물관리, 저류지 조성, 제방선 후퇴, 홍수터와 둠벙 복원, 수

1) 2018년 현재, 금강유역 용수이용현황, 환경부 한강홍수통제소, 2019년 하천유역조사 보고서
2) 금강유역 댐(다목적, 발전용) 현황 / 하굿둑 및 담수호 현황, 국토교통부,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11-2020)」 및 금강(II)지구 수문조사보고서(1996)

8.27(오전) 청양군 설명회 현장

생태벨트조성 등 자연기반해법을 적용하여 대응할 것을 명시한 계획을 발표하였고, 국가물관리위원회에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의 부합성 검토를 공식적으로 의뢰하였다.

수자원 관련 국가 최상위 계획이던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01~2020 제3차 수정계획)에서도 금강은, 지표 및 기대효과 이행 현황에서, ①유역 홍수 방어능력 제고, ②도시홍수 방지 등 종합 대응력 강화, ③홍수 대응 능력 강화 전부문에서 이행수준은 '미달성', 금강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 주요 목표인 '물순환 지표'도 '미달성'이었다.

물관리일원화 이후 수립된 법정계획들은 물관리 현황과 평가를 통해서, 홍수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대책으로, 하천 직선화와 준설, 바닥 평탄화, 공간의 개발로, 기후변화로 인해 변화하는 홍수량을 방어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서, 막무가내식 준설이 아니라, 사전 방류에 지장이 되는 하류 지역의 홍수관리 제약 여건 적극 해소, 홍수 취약지점 전수조사, 소하천 재해예방사업 확대, 옛 물길과 홍수터 복원, 제방 후퇴, 홍수예보 체계 고도화, 스마트 기반 지역 맞춤형 하천 홍수예측 정보 제공, 침수 우려지역 대피☒통제시스템 등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홍수 대응체계 구축, 빗물저류시설 확대, 도시 저류용량 · 침투량 회복 추진, 생물서식처 제공 등 기능을 갖춘 치수공간 설치 등 사전예보와 기후변화 적응, 건전한 물순환 체계, 주민참여형 홍수 관리체계 구축, 하천의 물흐름을 막힘없이 확보하는 등 자연 기반 해법에 의한 홍수 대책을 제시했다.

그러나, 현재의 환경부는 제2기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를 개점휴업상태로 방치하다시피 운영하였다. 게다가 환경부는 2023년 7월에 환경부 제시안이라면서 금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에다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사전 연구나 검토도 전혀없이 슬그머니 '지역 건의 다목적댐 건설', '댐과 저수지 퇴적토 준설' 2가지 과제 문구를 끼워

넣었고, 그것도 모자라서 강 자연성 회복 삭제, 금강 3개보 보처리 이행 방안등에 따른 전략과 추지과제들은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분야별, 유역별 과제, 전략에서 전면 삭제했다. 물론 금강유역물관리위원들의 제대로 된 역할은 그때도, 지금 신규 댐 발표 과정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금강유역물관리에 매우 중요한 사항임에도 유역물관리위원회는 패싱하고, 환경부에서 내려오는 지시만 추인하는 거수기 노릇을 당하고 있다.

최근 4년에 걸쳐서 금강유역도 기후변화 영향으로 2020년부터 매년 홍수가 잦게 발생하였다. 그러나, 청양 지천댐 건설 후보지인 지천에서 피해가 있기보다, 논산천, 청양 치성천, 부여 은산천, 충북 미호강에서 제방 유실이나 산사태에 의한 큰 수해가 발생하였다. 주민들은 한결같이 금강 본류의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지류하천의 물이 제대로 빠지지 못한 탓에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다. 지류하천에서 내려온 물과 불규칙한 집중강우와 태풍등으로 강물은 금강의 대형 다목적댐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순식간에 불어나는 기후변화가 점점 커져가고 있다.

금강유역은 국가와 지방등 하천기본계획수립율이 94.7%인 반면, 하천정비율은 48.5%[3]로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다. 가뭄은 산간 계곡이나 서해 도서지역에서 발생하고, 홍수도 모두 지류하천에서 발생하였다. 그래서 유역계획도 유역내 물확보와 이용 방안으로 지하저류지, 강변여과, 하수재이용, 해수담수화 등 대체수원 활용, 지역내 상수원 확보를 담았고, 기후변화 대응은 수원 다변화, 물순환율 높이기, 하천개수율 높이기, 빗물 저류시설 도입 및 제도 검토, 댐-광역상수도-농업용저수지 등 비상연계시설물 적정성 검토, 금강유역의 기존 도수로 시설의 적정관리 및 유기적인 운영체계 강화, 신속한 홍수예보 시스템 구축을 금강유역물과리종합계획 해당기간인 2030년까지 제대로 해야하고, 이행에 따른 필요 재정을 확보해야함을 구체적으로 강조했던 것이었다.

셋째, 댐 건설 후보지인 청양과 부여 주민들은 지천댐 건설을 반대한다. 이미 지천댐은 1991년부터 3차례나 댐 건설이 시도되었으나, 주민들이 반대하여 철회가 된 역사를 가졌다. 청양 지천은 칠갑산과 연결된 계곡과 장곡사, 까치내, 등을 비롯해서, 댐 후보지 하류는 부여와 인접한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 1급인 미호종개가 서식하는 국가유산지역이다. 깊은 산과 숲, 구불거리는 수많은 계곡과 들에서 공급된 모래가 지천을 타고 흘러내려, 미호종개와 함께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종 1급인 흰수마자도 그야말로 셀 수 없을만큼 품고 있다. 상류에 댐이 놓이면, 물도 모래도 공급과 흐름이 급감하고 물길도 변하여 국가유산인 미호종개도 법적 보호종인 흰수마자도 사라지고, 맑은 지천 물도 수질이 악화될 것은 누구라도 예상할 수 있다. 금강에 합류되는 지천은 금강의 제1지류 하천으로 자연환경과 생태계가 살아있는 생태공원이자 인류문화유산 자체다.

그러나, 홍수와 가뭄, 합리적 물이용, 강 자연성회복, 인공구조물 보처리와 같이 자연과 사람이 상호적응하고 공존하는데 필수적인 조치는 아무것도 제대로 준비하여 실행되지 않았다. 홍수대책의 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과 확대, 홍수관리 안전망 운영 및 신뢰도 높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기술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힘을 쏟지 않고 있다. 고작 홍수를 예방한다며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할당한 공사량을 채우느라, 홍수에 침수를 반복하는 천변시설 공사에 세금을 낭비하고, 하천 물길만 파헤치고, 하천바닥만 편평하게 긁어낼 뿐이며, 준설하는 구태를 벗어나질 못하고 있다.

또다시 대규모 댐 토목공사로 전국을, 금강유역을 유린하여 무인지경의 수몰지역을 늘릴 뿐이다. 물이용과 물재해 예방효과도 없는 댐을 충남의 알프스라고 불리는 청양과 유네스코문화유산 백제역사도시 부여를 공유하며 흐르는 지천 중·하류에 건설하는 제2의 4대강사업, 토목공사를 벌이려는 것이다. 환경을 보존하고, 물환경을 통합관리해야 할 책무를 부여받은 환경부장관이 취임된 지 5일만에 직접 발표한 신규 댐 건설은, 현 정부의 퇴행적 4대강 보 존치와 재가동에 이은 제2의 4대강사업이자, 환경파괴부, 환경개발부를 자처한 환경부-정부-토건재벌의 야합이며, 불법적인 국토환경파괴행위이다.

8.27(오후) 부여군 설명회 현장

멸종위기종 국가보호종과 천연기념물 국가유산이 서식하는 하천과 산림을 파괴하는데 막대한 재정을 낭비할 게 뻔한데도 주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지 않고 있다. 국민이 오래도록 함께 누려야할 물환경과 안전한 삶은 아랑곳하지 않고, 물관리 최상위 법정계획인 국가물관리기본계획, 금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을 무용지물로 만든 무법이 하천정책 변화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며 가로막고 있다.

환경부의 신규 댐 건설 후보지 계획 발표는 취소되어야 한다. 댐을 건설해야하는 사유와 타당성도 없이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사업이다. 기후와 생태에 대한 고민도 담겨있지 않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금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을 온전한 절차도 무시하고 환경부 입맛대로 한순간에 뜯어고친 불법행위의 결과일뿐이다. 금강유역물관리 전망 및 정책 방향과도 맞지 않는 모순을 가득 담고 있다. 전 지구적인 기후위기 시대에 댐해체가 세계적인 흐름인데도 해묵은 토건주의는 더 이상 해답이 될 수 없다. 기후변화에 무지한 관성적 대책인 토목공사인 신규 댐 건설 계획은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물관리 정책으로 변화해야 한다.

3) 금강유역 하천개수율(2020년 기준), [2020 하천유역조사 보고서(환경부, 2021)]

대청호와 지역 사회가 함께 만드는 깨끗한 미래

글_**이용욱** 대청호보전운동본부 팀장

안녕하세요, 대청호보전운동본부 회원 여러분!

대청호보전운동본부는 지역 사회의 환경 보호 의식을 높이고자 다양한 교육 및 실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찾아가는 물 환경 교실과 환경 지킴이단은 학생들과 직접 참여하며 물과 자연의 소중함을 깨닫고, 이를 통해 환경 보호를 실천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물 환경 지킴이단

물 환경 지킴이단은 1년 동안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여 물 환경 보호 활동을 경험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교육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생명존중과 생태계 보호 : 학생들은 물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유를 배우고, 물이 생명수로서 꽃과 나무를 살리는 과정을 탐구합니다. 이를 통해 생명존중과 생태계 보호활동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집니다.

물 여행 체험 : 우리가 먹는 물이 대청호에서 정수장까지 이르는 여정을 탐구함으로써, 학생들은 생활 속에서 환경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정기적인 환경 교육 : 학생들은 정기적으로 물 환경에 대한 교육을 받으며, 이를 통해 물의 중요성과 환경 보호의 필요성을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현장 체험 활동 : 대청호 주변의 생태계 탐방, 수질 검사 등 다양한 현장 체험을 통해 학생들은 직접 물 환경을 접하고 배우게 됩니다.

프로젝트 기반 학습 : 학생들은 팀을 이루어 물 환경 보호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하며, 이를 통해 문제 해결 능력과 협동심을 키울 수 있습니다.

찾아가는 물환경 교실

찾아가는 물환경 교실은 학교로 직접 찾아가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물 환경 교육을 제공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맞춤형 교육 : 각 학교의 특성과 학생들의 수준에 맞추어 교육 내용을 조정하여, 효과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아이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수업 : 이론적인 교육뿐만 아니라, 놀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어려움보다는 흥미를 이끌고 물 환경 문제를 체험하고 해결해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전문 강사 파견 : 대청호 해설사 소모임의 전문 강사들이 학교로 직접 찾아가서 수업을 진행하며,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흥미로운 강의를 제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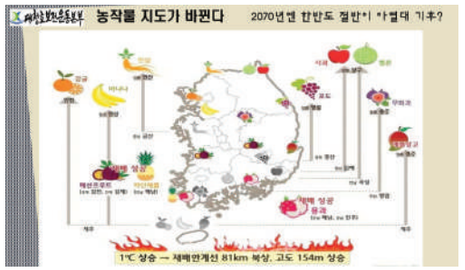
위의 내용과 같이 저희 대청호보전운동본부에서는 매년 많은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 환경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지금까지 저희 본부가 진행해온 환경 교육 내용의 일부분을 소개 해드리고자 합니다.

1. 기후 변화와 지구온난화

인간의 경제활동으로 발생한 온실가스가 지구의

온도를 상승시키며, 이에 따라 기상이변과 기후위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구온난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그 결과로 산림 분포의 변화, 생태계 파괴, 식량 생산의 어려움, 해수면 상승, 인간 건강 문제 등이 나타난다고 경고합니다.

2. 탄소중립의 필요성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 통제를 위해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2050년까지는 탄소 배출을 완전히 없애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한국은 세계 14번째로 탄소중립 법제를 마련하였으며,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를 통해 구체적인 목표와 실천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 수돗물의 중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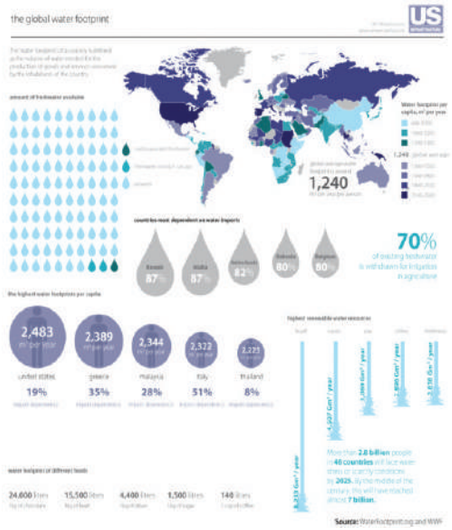
탄소저감 능력에서 수돗물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합니다. 먹는 샘물이나 정수기보다 수돗물 사용이 훨씬 적은 탄소를 배출하며, 이를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또한, 수돗물을 마시면 플라스틱 병의 사용을 줄일 수 있어 자원 순환 사회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4. 탄소중립을 위한 실천 방안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생활 습관들이 소개됩니다. 여기에는 대중교통 이용, 올바른 분리 배출, 재활용, 전기 절약, 텀블러 사용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탄소중립 실천 주사위놀이와 같은 교육적이고 재미있는 활동을 통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식도 제안됩니다.

5. 물발자국

물 발자국은 우리가 사용하는 물의 양을 측정하는 지표로, 일상적인 물 사용뿐만 아니라 제품과 서비스의 생산 과정에서 소비된 물까지 포함합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청색 물 발자국: 강, 호수, 지하수에서 직접 사용된 물.

녹색 물 발자국: 식물과 토양에서 흡수된 빗물.

회색 물 발자국: 오염된 물을 희석하기 위해 필요한 물의 양.

물 발자국은 탄소중립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물 소비를 줄이면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물 발자국을 줄이는 방법으로는 물 절약, 친환경 제품 소비, 채식 위주의 식단 등이 있습니다.

영동네트워크

무더운 여름을 지나 선선해질 가을을 기다리면서 ~

글_**이미나** 영동네트워크 팀장

갈수록 더해지는 폭염으로 유난히도 힘들게 보내고 있는 올여름인듯 합니다.

영동은 소유역거버넌스 사업의 일환으로 2회의 흙공만들기와 하천에 흙공투척, 3회의 정화활동을 했습니다.특히 4월에 상촌면 새마을협의회와 네트워크가 함께 하천정화활동을 했는데 많은 참여자와 최대의 쓰레기량이 수거되었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환경교육으로는 천연주방세제 만들기와 에코백 꾸미기를 5회씩 했고 회원들과 부신 기장군에 위치한 고리원자력 홍보관으로 선진지 견학도 다녀왔습니다.

일회용품 줄이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친환경 현수막을 제작하여 군내 40개소에 설치 했습니다.계도와 홍보가 기대 됩니다.

찾아가는 환경음악회는 20% 진행했기에 하반기에 조금 집중해서 진행해야 하는 사업입디다.

바쁘게 달려왔고 남은 기간도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무주네트워크

기상이상 속에서도 열심히!

글_**전선화** 무주네트워크 팀장

무주네트워크는 지난 8월20일부터 30일까지 안성면 구량천일대 주변에서 생태교란식물 가시박제거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간사단체로 활동하고 반딧불 산나물 친환경 영농조합 회원들과 활동을 진

행을 했는데요.생태교란식물 가시박은 열매를 맺기 전에 제거를 해야하고 또 번식력도 강하기 때문에 8월중에 제거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연이어 폭염특보가 내려진 무더운 날씨이었지만 생태계 보존을 위한 활동으로 5회 진행이 되었습니다.

대전 네트워크

대청호 상류지역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도농교류

글_**유지현** 대전네트워크 팀장

대전네트워크에서는 대청호 상류지역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도농교류사업(담당:대전YMCA)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6월에 대청호 상류지역으로 도농교류활동을 다녀왔습니다. 6월 22일에는 옥천 향수뜰마을로 산딸기따기체험과 직거래 및 체험활동을, 28일에는 영동 양강면 구강리로 자두수확체험과 직거래, 영동문화탐방 등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22일 옥천에서 진행한 프로그램은 '아빠와 함께 떠나는 농촌체험'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잠시나마 아빠와 함께 농촌에서 보내는 즐거운 하루가 되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영동자두수확체험은 조건희생산자의 설명과 함께 자두따기가 시작되었는데요. 빨갛게 익은 자두맛보며, 참가자들과 담소를 나누며, 그리고 맛있는 비빔밥까지. 오랜만에 느껴보는 힐링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두 맛도 좋아서 직거래로 많이들 더 구매하셔서 서로 함께 좋은 하루였답니다. 이런게 바로 도농교류의 즐거움 아닐까요? 올해가 가기전에 도농교류체험프로그램 꼭 한번참여해 보세요!

옥천 네트워크

맑은 금구천 만들기

글_**오희진** 옥천네트워크 팀장

2024년 옥천네트워크는 "대청호상류지역의 소유역거버넌스를 통한 친환경마을 만들기"로 올해의 사업은 맑은 금구천 만들기, 선진지견학, 향수둘레길 걷기, 안내천 소유역거버넌스, 올해 새롭게 진행하는 하천감시단원들과 깨끗한 서화천 만들기, 대청호수난구조대와 대청호 수중정화활동으로 진행했습니다.

상반기 진행사항은 맑은 금구천 만들기는 "환경사랑모임" 주관으로 2회 진행했습니다.

1차 3월에 진행한 금구천 정화활동은 환경사랑모임 회원 30명이 참여하여 옥천삼양초등학교부터 5일장 구간을 깨끗하게 정비하여 금구천이 깨끗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차는 6월에 진행하였으며 알파문구 하천변부터 5일장 구간 깨끗하게 정비하였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진행하는 사업으로 "향수둘레길 걷기"는 지역주민의 대청호 사랑을 더욱 깊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며 지역의 자연환경 및 역사에 대해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2회 진행했습니다.

총 5회 예정 중 6월~7월까지 39명의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소유역거버넌스"는 대청호로 직유입되는 안내천을 중심으로 안내면 2마을(정곡리, 방곡리)과 안내면 농약병 수거(환경사랑실천단)를 선정하여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마을별 2회, 농약병수거 2회. 총6회의 마을 정화활동은 2회까지 이루어져 하천 및 마을별 정화활동을 통하여 쓰레기 분리수거를 진행했습니다. 마을별 1회씩 진행하여 총2,800L를 수거했습니다.

마을별 환경교육은 총2회 이루어져 쓰레기 분리수거 방법에 대해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소유역거버넌스"는 대청호직유입 하천의 수질개선 실천활동 및 주민들의 환경의식과 마을가꾸기 자치활동을 활성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올해 새롭게 시행하는 "깨끗한 서화천만들기"는 옥천 하천감시단원들과 서화천유역 정화활동을 1회 진행완료. 20명이 참여하여 180L 쓰레기 수거하였습니다.

상반기 마무리가 잘 되었으며, 하반기에도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금산네트워크

집중호우에도 활동은 열심히!

글_**김청자** 금산네트워크 팀장

유난히도 뜨거웠던 여름 우리 금산에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많았습니다. 급변하는 날씨로 인해 농작물도 식물들도 생태변화에 적응하며 많은 변화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환경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는 사람도 식물도 어떤 환경이든 적응하다 보면 변화를 이루며 나아가게 되니 날마다 새로운 삶에 희망을 걸어 봅니다.

금산네트워크는 지금까지 60% 정도의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길고 긴 무더위속에서도 자연보호협회에서 꾸준히 진행한 하천정화활동은 3월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금강본류 강변과 금강으로 직유입되는 하천유역 정화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매월 40여명의 자연보호협회 회원들이 쓰레기를 줍기도 하고 누군가가 투척한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비지땀을 흘렸습니다.

금산고등학교 학생동아리 '공존'의 지역 사회와 연계한 지역 생태 및 지역 환경보존운동 활동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척 더운 여름날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친환경농업인연합회 중심으로 각종 음식물 쓰레기를 활용하여 1년 내내 사용할 농업 차 만들기 사업도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이제 조석으로 반가운 바람이 불어오니 회원마을 주민들과 즐겁게 깨끗한 마을만들기 남은 사업을 진행하고, 9월 초에는 생태계교란식물인 가시박 제거 작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청주네트워크

청주네트워크 운영위

글_**박종순** 천안아산네트워크 팀장

대청호청주네트워크 9월운영위가 지난 9월 9일 오전에 문의면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논의 안건으로 올해 사업중 대청호 마을가꾸기 사업이 예산사용없이 진행되어, 이를 환경교육과 대청

호 규제완화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토론회를 진행하는 사업 변경안이 제출되었는데 통과되었습니다.

주민 환경교육 진행에 대해서는 모두 긍정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대청호 규제완화에 대한 주민 간담회도 시의적절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공모사업으로 진행하기로 한 청주YMCA와 청주YWCA 사업 일정등을 논의하였습니다.

하반기 사업에도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하자는 뜨거운 결의로 회의를 마쳤습니다

차기회의는 11월 초에 진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천안아산 네트워크

생명의 병천천 만들기 활동

글_**이상호** 천안아산네트워크 팀장

병천천 소유역 시민과 함께 물 공동체로 하나 되는 '시민과 함께 그린(GREEN) 물 공동체 생명의 병천천 만들기' 사업의 목표는 소유역 물환경교육 활성화로 지속가능한 대청호 ~ 병천천 살리기 시민운동 확산, 시민·수계주민 대상 물사랑 환경교육을 강화하여 수질개선에 기여하고, 건전하고 건강한 네트워크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시민 모두가 함께 지켜나갈 병천천을 보존하고 알리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4 상반기 사업 진행 현황은 계획 대비 평균 50%의 진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1) 물사랑 시민양성 교육 및 캠페인 19회, 2) 물사랑 실천 환경교육 3회, 3) 네트워크 참여단위 운영회의 3회 진행되었습니다.

천안아산네트워크는 2024년 하반기 빈틈없이 계획하고 추진하여 지역주민, 기업, 시민단체, 학교 등 다양한 주체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시민과 함께 그린(GREEN) 물 공동체 생명의 병천천 만들기' 사업이 차질 없이 전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대청호 뉴스 & 뉴스

"대청호 배스·블루길 퇴치" 보은군, 올해 6.1t 사들여

충북 보은군은 어민들이 대청호에서 포획한 2t 가량의 배스·블루길을 수매했다고 4일 밝혔다.

어민에게는 1㎏에 3천200원씩 보상금이 지급됐다.

보은군은 대청호에 번성한 외래어종을 퇴치하기 위해 2013년부터 수매사업을 벌이고 있다.

지난 6월에도 4.1t을 사들여 농업용 퇴비나 가축 사료 등으로 제공했다.

군은 외래어종을 솎아낸 대청호에 토종어류 새끼를 지속적으로 풀어넣고 있다.

올해도 참붕어 10만 마리를 비롯해 뱀장어, 쏘가리 등 13만여 마리의 토종어류를 방류했다.

보은군 관계자는 "외래어종 퇴치와 토종어류 방류 등에 힘입어 대청호 생태계가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 2024년 10월 4일 연합뉴스 박병기 기자

"올해 낙동강·금강 공기 중 조류독소 불검출"

3년 연속 낙동강과 금강의 녹조 발생 지역의 공기에서 조류독소가 검출되지 않았다.

3일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낙동강과 금강의 모든 조사 지점에서 조류독소가 불검출(검출한계 미만)됐다고 밝혔다. '검출한계 미만'은 분석 방법을 통해 안정적으로 검출할 수 있는 물질의 최소량 미만으로 나왔다는 의미다.

몇 해 전부터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조류독소가 공기 중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은 녹조가 발생한 현장에서 에어로졸 형태로 조류독소가 확산되는지 여부를 밝히는 연구용역 및 자체 조사를 수행해 왔다.

올해는 낙동강의 합천창녕보와 물금지역, 안동댐과 영주댐 지역에서 19개 시료를 포집하고, 금강 대청호와 하류의 웅포대교 지역에서 13개 시료를 포집해 분석했다. 조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공기 포집기를 수표면 근접부, 수변부, 그리고 원거리 지점에 모두 설치하고 포집시간도 4시간 이상으로 장시간 측정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022년과 2023년에 같은 방법의 조사를 수행해 불검출 결과가 나온 데 이어 올해 조사에서도 공기 중 조류독소가 검출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환경부에서도 한국물환경학회에 의뢰해 낙동강의 도동서원, 영주댐, 무섬마을 등 3개 지역과 대청호 지역(옥천군 군북면 지오리)에서 공기 중 조류독소를 분석한 결과 모두 불검출된 바 있다.

김용석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연구부장은 "현재까지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의 조사에서 공기 중 조류독소가 검출된 바가 없다"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녹조가 발생하는 지역에서 지속적인 조사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출처 : 2024년 10월 3일 뉴시스 정유선 기자

대전 동구, 대청호 치유의 섬에 자연친화 새 둥지 조성

대전 동구가 대청호 치유의 섬에 자연 친화 새 둥지를 조성해 화제다.

4일 동구에 따르면 지난 1일 대청호 예술가, 동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대전환경운동연합, 다문화가족 등 150여 명이 대나무로 만든 새 둥지 100개를 설치했다.

치유의 섬은 올해 가마우지로 인해 큰 위기를 겪었으나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해 자연의 모습을 되찾은 의미 있는 장소다.

새 둥지는 대전시민들에게 개당 1만 원에 분양됐다.

다만 한국산업안전원이 이번 행사를 후원해 많은 시민들은 1000원에 구매할 수 있었다.

모인 분양금 전액은 대전환경운동연합에 기부됐으며, 기부금은 어린이를 위한 환경 교육에 사용될 예정이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우리 동구의 소중한 자연자원인 대청호를 보호하고 새들의 안락한 보금자리 제공을 위해 이번 행사를 개최하게 됐다"며 "가정이 제1의 장소이고 직장이 제2의 장소라면 오늘 이 치유의 섬에서 가족과 함께한 이 순간은 제3의 장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구는 2020년부터 대청호 자연의 소리를 느낄 수 있는 걷기 환경을 만들기 위해 새 둥지를 설치해 왔다.

출처 : 2024년 10월 4일 뉴스1 김태진 기자

낙동강 조류 경보 3곳 하향·해제…대청호는 아직 '경계' 단계

환경부는 낙동강 3개 지점에 발령 중이던 조류 경보 경계 단계 중 한 곳의 경보를 해제(강정 고령)하고, 칠서와 물금매리 등 2곳은 관심 단계로 하향 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0~21일 내린 비와 최근 기온 하강에 따른 것이다.

이로써 녹조 경보는 대청호에서 '경계' 단계가, 칠서와 물금매리·공산지·진양호·해평·옥정호 등 6곳에서 '관심' 단계가 유지되겠다.

칠서와 물금매리, 강정 고령에는 지난달 22일 처음 조류 경보가 발령됐다. 이후 약 40일 동안 녹조 위험 상황이 지속됐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조류 경보가 모두 해제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먹는 물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2024년 10월 2일 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충북, 8년간 2조5천억 들여 '수질 오염과 전쟁'…환경단체 "보여주기식"

충주호·대청호 등 모두 757곳의 호소를 앞세워 대한민국 물의 중심을 자처하는 충북도가 '수질 오염과 전쟁'을 선포했다.

특별사법경찰 등을 가동해 오·폐수 방류 등을 집중 단속하고, 민간 협치(거버넌스) 기구·시민 등의 참여 속에 지역 주요 하천 수질을 1등급으로 유지하는 등 수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32년까지 2조5천여억원들 투입하겠다는 청사진까지 내놨는데, 환경단체는 실현 가능성 등에 의문을 제기한다.

충북도는 7일 "단호하고 강력한 수질 환경 개선 계획을 추진한다. 2032년까지 미호강을 뺀 모든 하천의 수질을 1등급으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충북도는 △오·폐수 단속 △오염원 저감 시설 확대 △민간 협치를 통한 수질개선 도민 참여 운동 △수질 환경 교육·홍보 강화 등 수질 환경 개선 4대 분야, 14개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이를 위해 정선용 충북도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수질 환경 개선 추진단을 꾸리는데, 기획관리실 등 충북도 실·국 5곳의 실·과 13곳, 시·군 11곳(읍면동)이 참여한다.

먼저 오염원 조사·단속을 강화한다. 도·시군 특별사법경찰 140명으로 단속반(11개)을 꾸려 올해 말까지 3개월 동안 집중 단속을 벌여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처를 할 참이다. 보건환경연구원 등은 53개 지점에서 다달이 한 차례 수질 현황을 조사한 뒤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풀꿈환경재단·물포럼·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간 기구 등과 민관산학 협치 기구를 꾸리고, 수질 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도 강화한다. 도민 참여 운동으로 '1마을 1하천', '1사 1하천' 등 하천 살리기 운동도 편다.

정선용 충북도 행정부지사가 7일 충북도청 브리핑실에서 수질 환경 개선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충북도 제공)

정선용 충북도 행정부지사는 "충북은 아름다운 생태환경 보고로서 도민·후손에게 깨끗한 물을 돌려줄 책임을 지니고 있다. 환경이 밑바탕 되지 않으면 충북의 발전과 미래가 있을 수 없는 만큼 맑고 깨끗한 생태 환경 조성에 도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충북도는 2032년까지 2조5천여억원을 투입해 생활하수·산업폐수·축산폐수·비점오염원·폐기물 개선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주요 사업을 보면, 하수처리장 정비 등을 통해 하수도 보급률(89.5%)을 96.5%까지 확대하는데 1조5436억원을 투입한다.

공공폐수시설 신설 등 산업 폐수 관리에 2873억원, 청주·보은·진천 등 가축 분뇨 공공처리시설 등 축산 폐수 부문에 2013억원, 청주·음성 등 비점오염 저감·친환경 농업 등에 3080억원, 하천 쓰레기 수거 등에 1888억원을 단계적으로 투입한다.

충북도는 "이들 예산은 국비 1조2716억원, 수계기금 4081억원, 도비 1441억원, 시군 지방비 4109억원, 기타 융자·원인자부담금 2945억원 등으로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미 세워진 예산도 있고 정부·시군 등을 통해 확보해야 할 예산도 있다. 구체적인 것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이성우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수질 환경 개선 노력은 크게 반길 일이지만, 충북도가 발표한 계획을 보면 대부분 정부·자치단체·시민단체 등이 대부분 추진하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기식으로 짜깁기했다는 인상이 짙다"며 "특히 천문학적인 예산 투입을 밝혔지만, 실현 가능성도 떨어지고 별반 새로울 게 없어 보인다"고 꼬집었다.

출처 : 2024년 10월 7일 한겨레 오윤주 기자

옥천군, 2025년 금강수계 수계기금 20억 원 확보

충북 옥천군이 금강수계 특별지원금 20억 원을 확보해 대청호 수질개선과 주민 편의 시설을 확충하게 됐다.

27일 옥천군에 따르면 금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2025년 금강수계 특별지원사업'에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14억 원), 옥천 매화리 상하수관로 설치 사업(6억 원) 등 2건이 선정돼 20억 원의 수계기금 사업비를 확보했다.

금강수계 특별지원사업은 1개 사업당 지원 한도가 15억 원으로, 옥천군은 2개 공모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금강수계권역 10개 지자체 중 가장 많은 사업비를 확보하게 됐다.

금강수계 특별지원사업은 금강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과 전문가로 구성된 15명의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오염물질정화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선정된 사업에 수계기금을 지원하는 공모사업이다.

폐기물종합처리장 침출수 처리시설은 현재 옥천군 하수처리장으로 압송해 연계 처리하는 것을 침출수 전처리를 통해 처리수의 농도를 낮춰 대청호 수질개선과 녹조 저감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평가했으며,

매화리 상하수도관로 설치 사업은 도심지 확장에 따른 기반 시설이 충분하지 않아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했던 지역에 상하수도 관로를 설치해 깨끗한 상수도 및 위생적이고 편리한 하수도를 공급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 및 수질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봤다.

군 관계자는 "지자체 예산이 한정적인 상황에서 금강수계 특별지원사업에 선정돼 지방재정 부담을 절감하게 됐다"며 "대청호 수질개선 및 지역민 편의 제공을 통해 살기좋은 옥천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출처 : 2024년 9월 27일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대청이가 알려주는 '대청호가족'소식

무주군
농촌체험학습지도사 자격증 취득 과정 개강

무주군이 2024년 농업인 자격증 취득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무주군에 따르면 19일 농촌체험학습지도사 자격증 취득 과정(희망 교육 설문조사 결과1위)을 개강했으며 오는 5월 24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이론 및 실습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한다.

'농촌체험학습지도사'는 농가에서 교육농장과 체험농장 등 체험과 교육을 ㅁ접목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능력을 갖춘 자로,

이번 자격증 취득 과정은 △농촌체험프로그램의 이해와 △농촌체험 운영 준비, △상품개발, △스토리텔링 아이디어 발굴, △프로그램 운영·실습 체험, △농촌체험 상권분석의 이해, △마케팅 전략을 알아보는 등의 시간으로 마련된다.

지난 19일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업과학관 2층에서 개최된 개강식에서 수강생 장강현(안성면 거주, 34세) 씨는 "농촌 체험이 곧 농촌관광 활성화의 기반"이라며 "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끌어 가고 싶어 신청했는데 자격증까지 딸 수 있다니 무척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무주군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다양한 농촌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물론, 반딧불 농특산물과 연계한 콘텐츠 개발 및 활용을 통해 무주군 농업관광 활성화와 농가소득 증대를 꾀할 방침이다.

영동군
심천면 새마을협의회, 금강천변 환경정화 활동 펼쳐

충북 영동군 심천면 새마을협의회(회장 박정용·부녀회장 민정애)는 지난 10일 금강천변길에서 제초작업, 가시박 제거 및 쓰레기 수거 등 환경 정화 활동을 펼쳤다.

새마을협의회 회원 20여명은 이날 동트기 전 새벽부터 정화 활동에 구슬땀을 흘렸다.

심천면 새마을협의회는 4대강 사업길의 아름다운 자전거길로 유명한 날근이~옥계리~구탄·장동길 구간의 환경정화로 방문객들에게 청정한 휴게공간을 조성하고자 이번 활동을 추진했다.

박정용 회장·민정애 부녀회장은 "더운 날씨에도 함께 고생하며 작업한 회원들게 고마움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아름다운 심천면을 위해 환경 정화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영동읍 새마을협의회, 영동천변 제초작업 및 환경정화

충북 영동군 영동읍 새마을협의회(회장 고선규·부녀회장 박미용)는 지역주민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8일 40여명의 회원들과 함께 영동천변 제초작업 및 환경정화를 추진했다.

이번 활동은 특히 9일부터 시작되는 제55회 영동난계국악축제를 앞두고 우리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회원들은 예초기 등을 동원해 영동천 제방의 풀베기 작업을 진행하고 제방 풀뽑기 및 하천변 일대에 방치된 폐비닐과 플라스틱병 등 하천으로 유입된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고선규 회장·박미용 부녀회장은 "앞으로도 영동군의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영동읍 새마을협의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금산군
안창선 자연보호중앙연맹금산군협의회 전임회장, 환경부장관 유공 표창 수상

안창선 자연보호중앙연맹금산군협의회 전임회장, 환경부장관 유공 표창 수상

금산군 자연환경 위해 새집 달아주기, 야생 조류먹이 공급 등 활동 추진

안창선 자연보호중앙연맹금산군협의회 전임회장이 지난 4일 전북도 군산시 예술의전당에서 개최된 제46회 자연보호 헌장 선포 기념식에서 자연환경을 위해 성실히 업무를 수행한 공로로 환경부장관 유공 표창을 수상했다.

이 행사는 자연환경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열렸다.

안창선 전임회장은 금산군 자연환경을 위해 새집 달아주기, 야생 조류먹이 공급, 자연보호전국대회 참석, 홍보물 현수막 제작 등 활동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안 전임회장은 "앞으로도 금산군 자연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옥천순환경제공동체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옥천군 면담 결과보고'

2024년 8월 27일(화) 오후 3시 옥천군수 사무실에서 '모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 옥천군 주민 제안정책 요청서에 대한 면담'이 진행되었습니다. 옥천순환경제공동체는 지역단체와 주민과 함께 2023년부터 두 차례 '주민참여정책학교 운영'을 통해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고, 옥천군이 '2025년부터 3대 도입을 시작으로 2033년까지 모두 도입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게 되었다.

대전충남녹색연합
갑천스케치 하반기 활동 시작했어요

지난 9월 29일(일) 갑천습지를 걸으면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그림으로 표현하는 갑천스케치 하반기 활동을 시작했어요.

김성중 국장의 갑천습지가 갖는 생태적 중요성 이야기를 들은 후 갑천의 좌안 둔치길을 걸으며 가을을 한껏 느꼈습니다.

상반기에 이어 강사로 함께해 주시는 김은경 회원과 걸으면서 가을에 만나는 다양한 풀꽃을 살피고 돌멩이에 마음에 드는 풀꽃을 그려보았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서 모래무지, 갈겨니 등의 물살이들과 아주 가까운 물가에 온 물총새도 보았답니다.

가을의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많은 생명의 집이자 삶의 큰 터전인 갑천습지의 중요성을 생각할 수 있는 갑천스케치는 10월에 두 번째 만남을 가질 예정이에요. ☒

9.29 갑천스케치에서 만난 생명들 : 양버들나무, 왕버들나무, 양버즘나무, 느티나무, 메꽃, 억새, 갈대, 닭의장풀, 가시덩굴여뀌, 물총새, 까치, 모래무지, 돌고기, 갈겨니, 피라미

대전환경운동연합
바이 바이(Bye Buy) 플라스틱 프로젝트?

바이바이(Bye Buy) 플라스틱 프로젝트 들어보셨나요?

바이바이(Bye Buy) 플라스틱 프로젝트는 대전 서구청이 공용컵을 제작하여 카페, 영화관, 축제 등에서 음료 테이크아웃 시, 다회용 공용컵을 이용함으로써 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을 줄여보는 제로웨이스트 프로젝트(24년 9월~12월 운영 예정)입니다.

지난 9월 22일에는 대전인디음악축전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체험 활동을 겸한 캠페인을 진행했는데요. 대전환경운동연합 회원이시자 생태해설가 선생님께서 활동을 도와주시기도 했습니다.

체험 활동에 제공된 1회용컵은 바이바이(Bye Buy) 플라스틱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카페에서 사용 후 수거하여 세척한 컵으로 참여 시민들은 '지구를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하다며, '좋은 취지의 프로젝트 같다'는 소감을 전해주셨습니다.

대청호와 함께하는 단체들

무주네트워크

사무국/반딧불산나물 친환경영농조합법인
반딧불산나물 친환경영농조합법인, 무주군자연보호협의회, 무주군친환경농업반딧골연합회, 무주환경사랑, 무주푸른꿈고등학교, 부남면 가당리 하평마을, 부남면 가당리 상평마을, 부남면 가당리 가정마을, 부남면 굴암리 상굴암, 부남면 굴암리 하굴암, 부남면 고창리, 무주읍 장백리, 안성면 덕산리, 설천면 기곡리, 무주읍 내동마을, 설천면 길산리 상길마을, 무주군

금산네트워크

사무국/(사)정심회
(사)정심회, 금산친환경농업인연합회, 금산참여연대, 자연보호협의회 금산지부, 금산군작목별연구협의회, 전국축협노동조합 금산지부, 전교조금산지회, 금산친환경농업인연합회, 금성면 의총리, 제원면 용화리, 제원면 명곡2리, 제원면 명곡3리, 제원면 신안리, 부리면 수통리, 부리면 어재리, 남일면 신정리, 남일면 황풍2리, 추부면 성당리, 제원면 저곡1리, 금산군

영동네트워크

사무국/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영동지부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영동지부, 천모산유기영농조합, 한 살림영동공동체생산자모임, 영동지역아동센터연합회, 양산면 봉고리, 양산면 수두리, 학산면 지내리, 양강면 죽촌리, 심천면 고당2,3리, 양강면 구강리, 용산면 한석리, 황간면 회포리, 영동군

옥천네트워크

사무국/대청호주민연대
대청호주민연대, 옥천환경사랑모임, 옥천흙살림, 옥천군자연환경보호지도협의회, 옥천순환경제공동체, 옥천신문사, 안내환경사랑실천단, 옥천살림 영농조합법인, 옥천식생활교육네트워크, 영농조합법인 안남배바우공동체, 대청호수난수조대, 군북면 석호리, 군북면 항곡리, 동이면 석탄리, 청성면 합금리, 청성면 산계리, 청성면 고당리, 청성면 장위리, 안남면 도덕리, 옥천군

보은네트워크

사무국/보은지역아동센터연합회
보은지역아동센터연합회, 전교조 보은지부,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보은지부, 보은지역아동센터연합회, 회남면 분저리, 회남면 산수리, 회인면 부수2리, 내북면 두평리, 탄부면 임한리, 탄부면 상장2리, 마로면 기대리, 보은읍 성족리, 보은읍 중곡리, 보은군

대전네트워크

사무국/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천충남녹색연합,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YWCA, 대전YMCA, 해병전우회대전신연합회, 대전녹색소비자연대, 마당극단 좋다, 한국잠수협회 대전지부, 동구 직동 찬샘마을, 동구 세천동, 동구 주산동, 대덕구 이현동, 대전시 동구, 대전시 대덕구, 대전로컬푸드라온아띠협동조합

청주네트워크

사무국/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문의면 상장2리, (사)풀꿈환경재단, 충북생명의숲, 청주YMCA, 청주YWCA, 청주산단환경발전협의회, 청주지역자활센터, 청주발팩리, 백두대단보전시민연대, 문의면 구룡리, 문의면 노현리, 문의면 노현2리, 문의면 두모리, 문의면 묘암리, 현도면 사목2리, 문의면 괴곡리, 청주시

천안아산네트워크

사무국/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위례마을살이,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안KYC, 천안녹색소비자연대, 불당대동다숲아파트 도시농부단, 광덕산환경교육센터, 천안시

네트워크외 : K-water, 금강유역환경청,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소모임 : 대청호해설사